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2차 세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입니다. 성령은 신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의 인격과 함께 일하고 있으며, 구원에 있어서 그의 주요 사역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향하는 곳이지만, 성령의 인격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신학적 기초를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인격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람입니다. 영의 신성에 대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바뀌어지고, 그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연합됩니다.

신성한 속성, 신성한 일, 신성한 이름과의 상호 교환성, 그리고 오직 신에게만 적합한 성부와 성자와의 독특한 연관성. 영은 신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의 이야기로 본다면, 그것은 거대한 신성한 드라마이고, 성부 하나님은 감독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별은 성령이 아닙니다. 공동 출연자들은 놀랍게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들은 스타입니다. 우리는 신의 은총으로 공동 주연입니다. 저는 성령을 조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 그는 신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들의 신성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영의 신성에 대한 증거보다 훨씬 더 많고 더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그가 조연으로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그는 아들처럼 각광받지 않으며, 종종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은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신성을 보여줄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신성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작별 담화에서 적어도 세 구절에서 그를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의 자리를 대신하여 신을 계시합니다. 저는 이미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영은 예수의 분신입니다.

예수께서 가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영을 보내신다. 영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을 계속한다.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인 예수를 대신한다.

14:17,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조차도 세상은 그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를 영접할 수 없다. 세상은 절망적으로 경험주의적이다.

그것은 자신이 보는 것만 믿는다. 성령은 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니 세상이 그를 믿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그를 압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성한 진리의 영입니다. 1:5, 26, 똑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구절에서 제자들은 그

안에, 그들의 증거 안에 사로잡혀 있다. 그 의미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다.

16:13은 요한복음 14, 15, 그리고 지금은 16, 13에서 진리의 영이라는 명칭에 대한 우리의 작은 조사를 다시 한 번 완성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면 그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약 이 구절들을 예수가 신약을 미리 인증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옳다면, 예수는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신약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설교에 영감을 주어 그들의 설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글에 영감을 주어 그들이 쓰는 말이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의 신성한 속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그것을 더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더욱이 그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부 사용할 때마다 그의 이름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완전한 명칭이 주어진 곳은 여기뿐입니다. 당신이 인봉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로부터 인봉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성령, 그의 이름은 그를 오직 하나님께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시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면에서 뒤섞인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첫 몇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고린도인들이 성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성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은 신성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인 진리의 영과 성령은 그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성이나 진실성이라는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거룩함이라는 신성한 속성은 그의 이름의 일부이며 그의 사역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그는 또한 신성한 속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능력은 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19.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이런 용어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5:18.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일 외에는 아무 것도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다 이루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사역하노라.

바울은 단순히 인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으로 사역합니다. 성령은 신의 능력의 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는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10.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간직한다.

그들이 그것을 공유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생각을 그들 안에 있는 남자나 여자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영은 모든 것을, 심지어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천사 미카엘 외에는요? 아니요,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격을 분리하지 않고, 구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은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고, 사도들의 전파를 통해 그 생각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히브리서 9:14는 제 생각에 약간의 의견 불일치이지만, 저는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14는 영에게 영원을 돌립니다.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만이 인간이 되었고, 아버지도, 영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만이 땅에서 죄 없는 삶을 살았고, 아버지도, 영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고, 아버지도, 성령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지만, 인격을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조차도, 그의 독특한 사역이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성령의 사역이라고도 언급합니다.

장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는 것을 읽습니다. 18절이나 19절, 바로 그 구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9:14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히브리서 9:13, 그리고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암소의 재를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면, 영원한 영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정결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습니까. 제가 매우 존경하는 필립 에지컴 휴즈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히브리어 주석을 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측면에서 매우 좋지만 설교학에 있어서도 좋습니다.

그냥 그가 웅변에 능통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훌륭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는 여기서 영원한 영을 예수의 신적 본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감각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흠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셨겠습니까? 저는 윌리엄 레인의 뛰어난 두 권짜리 히브리서 성경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것만으로도 속죄가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성령의 권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희생이 절대적이고 절대적이어서 구약의 모든 희생이 쓸모없게 되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보여 주듯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구약의 희생이 효과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을 혼동하지 않고 성부나 성령을 십자가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십자가 사역에서, 그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19.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14.

따라서 영은 영원합니다. 영원의 신성한 속성은 지식의 신성한 속성과 함께 영에 묘사되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2:10) 그리고 권능의 신성한 속성과 함께 로마서 15:19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은 신성한 일을 합니다.

속성과 함께, 이것은 삼단논법입니다. 오직 신만이 행하는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성령께 돌립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들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 성령이다.

영은 창조에 관여합니다. 창세기 1:1, 2.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형체 없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성령을 새의 이미지로 말하는데, 이는 성령이 예수의 세례 때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은 물 위를 맴도는 새와 같습니다. 즉, 성령은 창조의 일을 수행하고 그 일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 1장의 신약은 아들 도 마찬가지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창조하고 그의 대리인은 아들과 성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 측면에서 성령에 대한 내용이 아들보다 적은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요. 그러니 지금은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경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합니다(베드로후서 1:20, 21). 베드로가 예언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어떤 예언도 누군가의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언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혼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말했습니다. 인간들은 모세나 다윗, 요한이나 바울의 스타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으로부터 말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제작에 역할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물론 , 그들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역할을 감독하여 그의 말씀, 그의 흠 없는 말씀, 비인간적인 말씀을 만들어냈습니다 . 성경의 영감 교리를 은혜 교리의 하위 집합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복음과 그 이상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에 따르면, 예수님이 행하신 또 다른 신성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시는데, 직접적인 진술이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할 때 신성한 수동태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 성경에서 두 번만,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그것을 취합니다. 성경에서 두 번, 요한 복음에서만 아들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몇 번은 성령이 행동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졌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그는 인간이셨고 ,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거룩함의 영에 따라 능력으로 신성한 인간이 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아들 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2장과 10장에서 두 번 아들이 스스로 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또한, 몇 번은, 성령이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데 활동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만이 행하는 독특한 일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주된 역할은 구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이전 강의의 맨 처음에 보았듯이 택하시고, 아들은 구속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성령은 구원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합칩니다. 고린도전서 12:13.

한 영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고,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다른 이미지, 즉 액체를 마시는 것 또는 기독교 세례를 사용하며, 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개인적인 구원론적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합해졌다고 믿지만, 즉시 그들은 구원을 위해 예수님과 합해진 다른 모든 사람과 합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영으로, 또는 한 영으로 번역할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은 구원을 적용합니다.

구원에서 성령의 주된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모든 구원의 은총에 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15에서 성령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바는 아기말이 아니고 다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뜻합니다. 아이의 말입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존경의 단어입니다.

저는 수업에서 다다나 대디처럼 아기말이 아니라고 한 번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아빠를 대디라고 부르죠. 참 아름다웠어요.

즉, 성장한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팝이나 대드, 대디,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다. 그게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렸을 때에도 같은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

아기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존경스러운 호칭입니다. 글쎄요, 바울은 로마서 8:15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로서의 입양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속주로 믿게 하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권리, 특권, 성인 자녀의 책임과 함께 그의 가족으로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입양에서 활동합니다.

그는 거듭남에서 활동합니다. 디도서 3:5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셨을 때, 디도서 3:4, 그는 우리가 의롭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3:8에서 보듯이 바람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불죠.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요한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8. 성령은 구원을 적용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합니다. 천사나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만이 그렇게 합니다. 영은 신입니다. 영은 거룩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13.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첫 열매 로 택하셨음 이니라.

성령은 믿는 자들을 처음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에 의한 이 거룩함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초기 거룩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 로 택하셨습니다 .

실제로 텍스트 문제가 있습니다. 첫 열매인 ESV가 처음부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문자 한 글자만 다르고 단어도 함께 있습니다.

aparxes , 즉 처음부터, 또는 aparxe , 즉 첫 열매 입니다 . NIV는 처음부터라고 말합니다. ESV는 첫 열매 라고 말합니다 . 신학자로서,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올바른 번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이고, 이 경우에는 본문 비평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의 목적에 맞게 ESV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 말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첫 열매 로 택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번에 영원히 구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는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칭의도,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영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죄악적인 생활양식을 몇 가지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으나 너희는 씻김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세 개의 동사, 모두 과거형이고 모두 수동태, 믿는 자들에게 행해진 일, 과거에 그들에게 행해진 일.

그들은 씻겨졌는데, 아마도 기독교 세례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거룩해졌습니다, 과거형.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 두 전치사 구는 확실히 세 동사 중 마지막인 의롭다고 인정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동사와 어울립니다. 저는 그것들이 세 동사 모두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성화는 또한, 미안하지만, 여기서 칭의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도 그 두 전치사 구는 세 동사 모두와 함께 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이 마지막 동사와 함께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실례합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성령은 의롭다고 인정하는 데 활동합니다.

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글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고 함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에 대한 언급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즉, 영은 구원하는 믿음의 선물을 줍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처럼,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예수의 주권에 대한 원시적인 기독교적 고백을 진심으로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 역시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을 모든 차원에서 적용합니다. 연합, 입양, 거듭남, 거룩함, 칭의. 성령은 구원에 너무나,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정식입니다.

영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로마서 8:9). 그것이 바로 영이 구원에 얼마나 필수적인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언급은 그와의 연합을 말하며, 우리는 나중에 다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격을 보여줬고, 이제 그의 신성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십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 안에 거한다거나 천사가 인간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16과 17에서 이미 두 번 보았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14:16, 17.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가장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인격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거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 두 번이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음에서의 부활에 영이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한 구절입니다 .

이것들은 신성한 일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16. 교회는 단체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19. 믿는 자들은 개별적으로 성령이 거하심. 고린도전서 3:16.

너희는 복수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희 복수인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성경에서 성전은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알겠지? 사실,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장막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이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 복수에 거하시고, 그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곧 성령이십니다.

6:19는 성적 부도덕을 언급하고, 따라서 그것은 인간, 성령이 거하는 개별적인 몸입니다. 성적 부도덕을 피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18. 다른 모든 죄인, 다른 모든 죄, 다른 모든 죄, 으악,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 부도덕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면 네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네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네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우리 몸을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듭니다 . 고린도후서 1:21, 22. 바울은 여정을 바꾸고 두 번째로 고린도에 오지 않아서 주저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것에 덤벼들었다. 오, 그는 여정을 바꾸고, 양말을 갈아입는 방식, 오, 양말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만들었어, 그가 마음을 바꾸는 방식, 그는, 그리고 그의 복음, 그의 메시지, 그는, 그는 끝까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개인적인 모욕은 감당할 수 있지만, 복음은, 복음을 비판할 수 없다. 바울은 휘두르며 나온다.

고린도후서 1:20.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분, 예수님 안에서 '예' 를 발견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아멘을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도다. 물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그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 나는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말한다. 내 메시지는 화살처럼 곧다. 그것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이고 , 예수님에 관해 전파된 메시지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증하시는 메시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거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14 입니다. 같은 진리가 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거하고 있으며,

주로 우리는 성령에 의해 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영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바울은 그의 제자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좋은 보관물을 지키라고 썼습니다.

영은 신성합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 안에 거하시며, 영이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3과 4에서 보았듯이, 영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바꿔 쓰입니다.

아나니아, 당신은 성령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제 오리들을 일렬로 정렬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성령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3절. 4절, 당신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바꿔 쓰이며,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3:16에서 단체적으로 언급되고 성령의 성전은 고린도전서 6:19에서 개별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영의 이름은 하나님과 바꿔 쓰이며, 사도가 부주의한 방식인지 아니면 영이 하나님 자신임을 암시하는 방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신성한 속성을 가지고 신성한 일을 행하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영은 오직 영, 하나님만이 연관되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연관됩니다.

마태복음 28:19, 20의 대명령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도, 영은 힘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스타워즈 신학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로아스터교이고, 존재론적 이원론이에요. 포스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 세상에. 아니요, 영원하고 하나이신 하나님께는 어두운 면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 안에 이중성이 없습니다. 그는 한 분의 신이며, 영원히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때요? 성부, 성자, 피조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경건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슬롯이 사람뿐만 아니라 신성한 사람에 의해 점유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즉, 성령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것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연관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삼위일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합니다. 그는 은사와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세 가지를 각각 삼위일체적 인격과 연관시킵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아들을 섬기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은사와 봉사를 통해 일하여 결과를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12:4~6, 이 분열된 회중에서 연합을 증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은사는 다양하지만 같은 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봉사가 있지만 모두 똑같습니다. 주 예수님.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께서 모두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께 적합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도는 은사를 주고, 천사는 은사를 줍니다. 아니, 아니, 아니. 하느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바울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교제를 주십니다. 우리와 교제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 인간들과 교제하는 신성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그 축복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연관되는 방식은 성령의 신성과 성격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21, 22, 저는 그것을 오순절의 예고라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거부하면, 그것은 거부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사역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관련됩니까? 성령은 죄의 용서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를 축복합니다.

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몸을 살아있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 더 나은 말로 재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여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즉,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듯이 성령입니다.

예수님, 오순절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일인 만큼, 그는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님의 오순절 예언에서 죄 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었지만, 고린도 사람들을 아끼기 위해 그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한 복음의 설교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는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봉인, 봉인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의 구원, 계시록의 인사, 실례합니다, 계시록의 책, 인사, 또한 아들을 아버지와 성령과 연관시키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연관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곧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부터, 곧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충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 죄송합니다, 성령은 영원하신 아버지와 선지자이자 왕이시며 제사장이자 왕이신 아들과 연관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충실한 증인입니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이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제사장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성령은 계시록 1장의 이 인사와 연관되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사역은 다시 한번 성령의 신성을 더욱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1, 2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 때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과 비슷하게, 마태복음 3:16, 창세기 1은 성령을 사용하고 새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은 창조물, 신성한 창조물 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욥기 33:4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능자와 평행한 영. 영은 창조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줍니다. 창세기와 욥기가 성령이 창조에 역할을 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하고 성경의 주어짐과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 특히 예수 안에서의 그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의 주요 사역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흥미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관심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입니다. 성령은 신입니다.